

나눔의 달

송년 감사 주일 / 선교주일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올해도  
 내년도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새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December 26,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106번 - 감사절 2 찬 송 / 354장 - 주를 앙모하는 자 (통일찬송 394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361장 - 기도하는 이 시간 (통일찬송 480장) 찬 송 / 320장 - 나의 죄를 정케하시 (통일찬송 350장) 봉 헌 / 유동숙 집사, 최내권 집사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미가 7:7-13, 18-20 <b>지난 날을 되돌아 보니 “오직 주님만이”</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351장 -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통일찬송 351장)
삶과 세상으로	찬 양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빌립보서 2:5-11, 26-30

서로에게 능력과 축복으로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1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가족과 성도, 그리고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 2022년 표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주제 말씀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 송년감사주일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주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 선교주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 송구영신예배 31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신년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새해를 준비합니다.
- 성경 읽기 2022년에는 더 열심히 매주 성경읽기에 참가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니다.  
(오전 11:00 / 인도: 장영현 전도사)
- 방역 update 일리노이 주정부의 지침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믿음의 뿌리 내리기 1) 기도운동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니다.

12월의 사역 - 선교/송년감사주일 (26)

선교 주간 (26- 1/1)      송구영신 (31)      신년감사주일 (1/2)

♥12월 생일축하♥ 오준하(2) 김훈태(19) 박다현(23) 유덕하(28) 최선윤(30)

### 기도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2/19	12/26	1/2	1/9
	장영현전도사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12/19	12/26	1/2	1/9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오정은집사/박진성집사	
주일안내위원	12월		1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구주 예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은?** / 마태복음 2:9-12

이방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리어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께 합당한 예물이었다. 최고의 금속인 황금은 왕권을 뜻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왕이시다. 아주 향기로운 유향은 중보를 뜻한다. 예수님은 죄인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시는 중보자이시다. 몰약은 고무 형태의 값비싼 향료로 향수나 화장품의 재료로, 시체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쓰였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속죄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 뜻한다. 우리도 구주 예수께 최고의 예물을 드려야한다. 그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황금보다 귀한 믿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스스로 더욱 낮은 자리를 찾아 내려가며 자기 부인을 예물을 드려야한다. 박사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가져온 보배함 안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준비되어있었다. 지금 나의 삶 속에도 예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 준비되었는가? 구주 예수께 최고의 예물을 매일의 삶으로 드리자.

**지난 날을 되돌아 보니 “오직 주님만이”** / 미가 7:7-13, 18-20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는 감시의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생경적인 믿음을 굳건히

내가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영적 지식을 더 풍성히 기도, 말씀묵상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자.

### 지난 날을 되돌아 보니 “오직 주님만이” / 미가 7:7-13, 18-20

이스라엘의 암울한 영적 퇴락을 지켜보며,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했다. 언약 파기에 대한 심판,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했다. 우리 역시 오르내림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고 고백하려면, 믿음과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

우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고백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응답이 미루어질 때, 믿음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지 않도록 하자. 미가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해도 새롭게 시작하며,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강인한 군사의 믿음으로 일어선다. 우리도 칠전팔기의 신앙으로 인생의 위기들을 헤쳐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해야 한다.

둘째, 곳곳에 놓인 걸림돌과 함정이 있는 세상에 살며,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지녀야 한다.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당신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여야 한다.

셋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은 영적 지식 위에 가능하다. 미가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로 회복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밝히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잠깐이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를 기억해야 한다.

송년감사주일. 온전한 회개의 시간을 갖자. 심지어 깨닫지도 못한 죄도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구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셨다. 암울한 시대를 지나며 끝까지 소망을 품었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 기도와 깊은 말씀을 묵상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친밀히 교제하자.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하자. 2021년을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만”으로 지나왔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믿음이 가득한 2022년 새해를 맞자.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만고불변의 진리, 믿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수확의 법칙)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만든 마음의 법칙입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법칙은 세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아무리 기대하고 소망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표면의식으로 생각한 것은 경험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마음 깊숙이(주로 잠재의식 내) 심기지(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간절히 원함으로써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진(경험되어진) 것으로 믿게 된다는 것이며, 잠재의식 내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은 “뇌와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는 “우리가 믿은 대로 현실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현실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정말 이루어질 것으로 믿을 때 그 믿은 대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동안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마 8:13)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마 8:13)**

**둘째,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칙입니다.** 콩을 심고 팥을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기대, 소망)하는 것과 자기가 심은 것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빨간 사과를 생각하지않을 거야!’라고 생각했다고 치면, 지금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그려질까요? 당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빨간 사과를 그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암을 치유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면 당신의 생각과는 달리 당신의 마음에 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암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가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결과만을 기대하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심은 악한 것도 동일하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든지 또는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 아니면 저주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계속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보다 믿어지지

않는 것(의심이나 불신)이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작동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하루에 콩을 세 시간 심었는데 한순간 '설마 콩이 나겠어?'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세 시간 심은 콩의 수확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 심은 것에 대한 증수(增收)의 법칙입니다. 생명은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알의 씨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두게 됩니다. 식물의 씨를 심고 그 열매의 수확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를 심었는데 나쁜 것은 두 개를 심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결국에는 나쁜 것만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어떤 기도를 했느냐보다 기도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 마태복음 13장 8절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과 결핍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내면의 의심과 불신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내어 기록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은 감사가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로 수확되기 때문입니다. **손기철, 말씀대로 말하라**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2022년 새해는

“성경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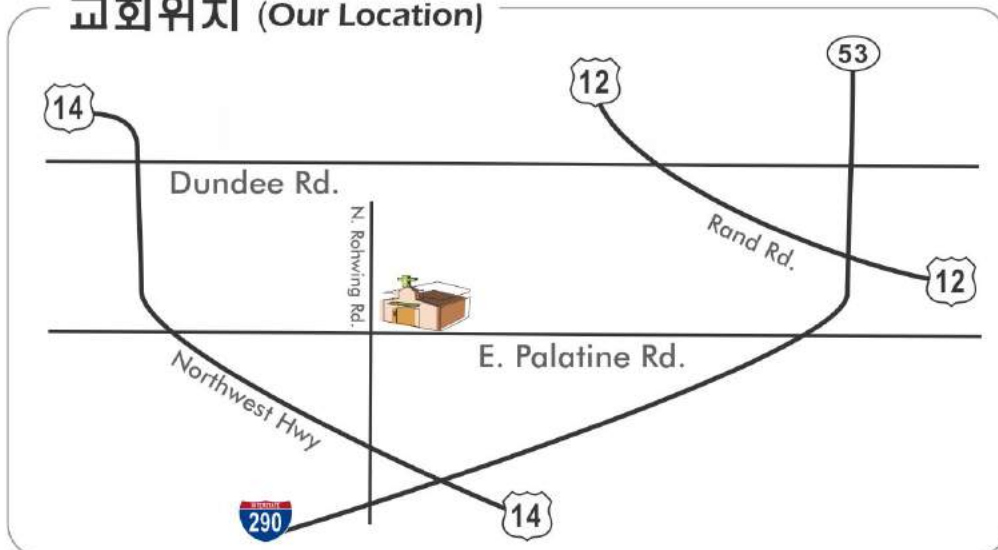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